

국감현장 - 광주시

# ‘갬코’ 의원·시장 설전... 정회 2순환도로 1000억 혈세 질타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이하 갬코사업)을 놓고 일부 의원과 강운태 광주 시장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정회가 선포되는 등 과열이 벌어졌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과 공기업 부채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화상 민주당 의원인 “갬코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리한 사업으로 결론 났다”며 “광주시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만약(부정행위)이 오갔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갬코사업과 관련된 영상자료까지 동원하며 강 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갬코사업으로 80억원이나 낭비해놓고도 감사원의 조치사항(추가 손실 방지 및 관련자 고발 등)을 무시하고 유령기업에 ‘퍼주기’로 일관했다”며 “광주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 2012년 7월 16일~9월 21일)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갬코사업 전반에 걸쳐 강 시장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사업자인 브래튼리는 언제 만났느냐”, “브래튼리는 한국계냐 중국계냐”, “누가 소개해 줬느냐”, “미국회사와 MOU는 언제 체결했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시장님 투자행정 잘 하셨네요’라는 말을 하겠느냐”고 따져 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죄인 취급 하듯 질타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의 의원반장을 맡은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강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강 시장은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면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이 쪼아할 것 아니냐”며 “갬코 관련 질의내용에 사실이 왜곡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아 목소리가 다소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갬코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거둬들인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다”며 “갬코사업 때 설립된 EMIG(2D→3D 전환업체)는 최근 프랑스 등에서 대량 3D컨버팅 물량을 확보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체로 성장중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갬코사업은 비리와 관련이 없고, 문화 관련 산업이 없다시피 한 광주에 선진 문화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정책적 판단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가)지겠지만, 진중중의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도 제기해 광주시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갬코에 이어 제2순환도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상 민주당 의원인 이날 광주시청 국감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 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는 한국내 13곳의 인프라에 투자중이며 현재 모든 사업장이 법적 소송 중에 있다”며 “광주 등 모든 인프라 시설이 사업 당시 과도한 수익예측을 해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운영손실보증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맥쿼리는 지난 97년 제2순환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고재유 시장때인 2000년 12월 1차 협약변경, 박광태 시장때인 2004년 10월 2차 협약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서의로 적자운영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서 “맥쿼리는 특히 법인세와 주민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적자에 따른 광주시의 보전금으로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계약당시 수익예측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올해까지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업자(맥쿼리)에게 지급한 상태”라면서 “SOC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맥쿼리를 상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현재 진중중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을 확실한 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민성직에게 시달리는 공기업의 체질 개선도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감현장 - 광주경찰청

# 여성 청장 ‘칭찬 릴레이’ “칭찬은 사석에서” 제지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반장 이찬열 의원)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칭찬과 위로, 피감기관의 의견을 묻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 국회의원들의 광주비엔날레 관람 일정에 맞춰 개시 시간이 수차례 수정되는 바람에 애초 예정보다 1시간15분가량 늦게 시작되기도 했다.

문화상 민주당 의원인 “선진적인 112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광주 등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방법들을 설치해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줄어들고 있어 우수사례”라고 칭찬했고,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 대통령 후보도 나오는데 여성 첫 치안감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여경 후배들의 이정표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의원들 비엔날레 관람

### 감사시간 수차례 바뀌

이날 광주경찰청사 9층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광주지역 7대 범죄 및 성범죄 증가, 치안올레길 운영 실패, 학교폭력 및 조직폭력범죄 현황, 광주진보연대 간부 자택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찬열 감사반장이 감사위원들에게 “칭찬은 가능한 사석에서 해달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민기 민주당 의원인 “광주 경찰의 112 순찰 차량 현장 도착까지 소요 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짧았지만 현장검거율은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또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광주 경찰 112에 걸려온 전화 29만2204건 중 경찰관과 통화조차 못하고 끊긴 사례가 2760건”이라고 질타했다.

국감 서두에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보다는 여경 첫 치안감인 이금형 청장을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분위기로 형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한미합작투자사업(갬코) 실패에 대한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文·安 단일화 논의 쉽지 않네

## 문 “빨리 시작을” 안 “급할것 없다”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압박하는 외부의 물살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 후보는 단일화를 정권 교체의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연결 고리를 찾는 데 부심하고 있지만 안 후보는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일단, 문 후보 측은 친노 핵심참모 9명의 선대위직 사퇴를 계기로 강력한 정치쇄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안 후보와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문 후보가 이날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밝힌 정치개혁 구상은

안 후보가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제시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혁신의 3대 요소에 대해 화답 차원으로도 평가된다.

문 후보 측은 대선 후보 등목일이 다음달 25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20일까지는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날 말부터 단일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안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면 후보의 정책이나 비전 제시, 행보가 모두 단일화 이슈로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단일화 논의가 늦추면서 지지율을 최대한 견인, 최종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국민이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주면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금대섭 선거캠프 상황실장도 이날 CBS·평화방송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단순히 힘을 합치고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새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 양측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단일화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만약 단일화 과정이 마련된다면 방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전도 못찾은 기자회견

**광주시범·사대 교육대학교**

**제38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2012. 10. 27(토) 09:00  
○장소: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화: 062-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